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화 수요일 : 3월 5일(수) 사 순 절 : 3월 5일(수)~4월 19일(토)

종려 주일 : 4월 13일(주일) 고난주간 : 4월 13일(일)~4월 19일(토)

성화 목요일 : 4월 17일(목) - 세족식

성화 금요일 : 4월 18일(금) - 예수 수난 영화 감상

성화 토요일 : 4월 19일(토) - 달걀 포장 및 부활절 전도

부활 감사절 : 4월 20일(주일) - 부활절감사/새생명초청/총동원/세례식

3. 태신자 작성서를 작성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태신자 작성 및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침부해 드린 태신자 작성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봉헌해주세요.
(태신자 대상 : 가족과 친지, 이웃과 동료, 학교와 기업 등)

4. 아하브 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오전 11:00 ~ 오후 3:0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 교육관

교육 : 오전 - 홈스쿨 컨퍼런스 후기 소감 발표

오후 - 미술 수업(저학년) / 손마인드맵 & 씽크와이즈(고학년)

※ 마인드맵 준비물 (스케치북 또는 A3복사지, 색연필, 연필)

5.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중),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임명순(무릎인대파열)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통원치료), 오민지 집사(출산 회복, 태아 건강)

6. 2025년 3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요역 2.2 ~ 3.3)

3/16(일)-박태성 성도(-2.17) 3/02(일)-김주하 어린이 3/24(일)-정완희 학생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3/05	재의 수요일
03/09	사순절1주 / 태신자 작성1주
03/11	아하브코업 정기모임
03/16	사순절2주 / 태신자 작성2주
03/20	경가사자방 교역자 기도회대신
03/23	사순절3주 / 태신자 작성3주
03/25	아하브코업 정기모임
03/30	사순절4주 / 태신자 작성4주
	선교 헌신의 주일모로코 소개
04/01	찾날빛이 일석예배(성찬예식)
04/03	산상 기도회
04/06	사순절5 / 태신자 만남1주
	직원회 (1/4 분기)
04/11	대한민국임사정부 수립기념일

주일 사랑 운동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3/09	박제연 집사
3/16	이광근 안집사
3/23	임명자 집사
3/30	임명숙 집사
4/06	김혜숙 권사
4/13	정애자 권사
4/20	박제연 집사



주사랑 8권 10호

창립 2017.11.25

2025년 3월 9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 서울신대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사순절 1주 태신자 작성주일 서울신대기념주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1~2)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 태산자작정주일 ①) 인도:집례자

- ※ 목 도 시편 91:1~2, 14~16 인 도 자
- ※ 찬 송 가 찬 151장 다 같 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시교독 No.124 사순절(1)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265장 다 같 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 대 표 기도 박제연 집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 ※ 성경 봉 독 로마서 10:8~15 (신 253) 박제연 집사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담 임 목사
- 봉헌찬송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은총 학생)
- ※ 축 도 담 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 일 조 : 한승훈·임명순 한은총 한하락 / 한승훈·임명순 무명
- 주정헌금 : 문재호 박제연 이광근 오동영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 감사헌금 : 이광근 박제연(자녀) 박태성 전복순
- 월삭감사 : 한성결 한은총 한승훈 임명순 한하락
- 심방감사 : 김혜숙(치위) 한승훈 임명순(치위)
-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하락
- 구역헌금 : 박제연 임명순
- 선교헌금 : 문동진 임명자 / 한승훈 임명순
- 건축헌금 : 한승훈 임명순
- 차량헌금 : 나승원 장영미
- 후원헌금 : 조은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8:22-25 (신 104)

말씀제목 풍광을 잠잠케 하는 예수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1:1-44 (신 165)

말씀제목 일곱 번째 표적 나사로 살리심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부모님 중

성경봉독 열왕기상 20:13-21 (구 551)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진정한 승리의 비결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4:1-13 (신 93)

말씀제목 성령충만이 이끄는 순종의 삶

새벽 기도회

새벽5:30 매일성경 (월~금)

9일(일) 눅 8:22-25 풍광도 순종하는 예수 권

10일(월) 눅 8:26-39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

11일(화) 눅 8:40-48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사

12일(수) 눅 8:49-56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13일(목) 눅 9:1-9 예수로 인한 축복 두려움

14일(금) 눅 9:10-17 좋은 것을 막아서는 목자

15일(토) 눅 9:18-27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일(일) 눅 9:28-36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아는 자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가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국기선교(오주교훈소쿨)



해와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⑦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고랑을 씌우고 옥에 가두었던 성전의 총감독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죄를 물으셨나요? (렘 20:1~2, 6)

¹임멜의 아들 제사장 ()은 여호와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²이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⑧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와 또다시 예언을 선포하게 된 심경의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렘 20:8~9)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과 ()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과 () 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하여 () 없나이다

⑨ 예레미야의 21장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감옥에 가두었던 예레미야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만, 예레미야는 능력으로 위급함을 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바벨론에 항복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렘 21:7~10)

여호와와 말씀이나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과 ()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원한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하는 자는 ()이나 그의 ()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⑩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임히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렘 21: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 때문에 내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렘 16:10~11)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셨음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나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이라
- ② **이스라엘을 징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나요?**(렘 17:5, 7)
⁵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⁷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하며 여호와를 ()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 ③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렘 17:9~11)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펴며 폐부를 ()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니 ()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가 되리라
- ④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나요?**(렘 18:18)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 하나이다
- 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겼던 골짜기인데 어디일까요?** (렘 19: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 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뜨린 후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진 옹기처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무엇인가요?** (렘 19:10~11)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과 이 ()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13년간 3천 명의 인생을 바꾼 일본 최고의 상담가인 나카고시 히로시는 행복해지는 삶에 대한 비결 중 한 가지로 ‘비판을 이겨내는 6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1. **상처 받을까봐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2.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장점도 드러나며, 약점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3.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과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최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4. **심각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나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보다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5. **반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같은 하루를 반복하다보면 좋은 습관이 되고, 지속적인 습관은 자신만의 실력을 만들어 내며, 실력이 쌓인 삶은 인생이 됩니다.
6. **불안해도 한 걸음씩 도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매우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강한 마음>과 <무례함이 없는 용기>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어지는 힘의 원천입니다(히 10:22).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쓸데없는 비판을 이겨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창 17:1).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일과 신앙 중심의 지속적인 삶을 만들어 내십시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명기 33:2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신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95	제2차 남북조 전쟁	대하 16:1
찬송가	 찬 358장	다	같이	886	북조 엘라의 등극(~885)	왕상 16:8
대표기도		자녀	중	885	북조 시므리의 모반	왕상 16:16
성경봉독	 왕상 20:13-21	말은	이	885	오므리 왕의 등극	왕상 16:23
말씀인도	 진정한 승리의 비결	부모님	중	824	아합의 등극	왕상 16:29
합심기도		다	같이		엘리아의 사역	왕상 17:1-24
헌금기도	 찬 353장	말은	이	860	아합과 벤하닷의 허무한 대결	왕상 20:1~12
주기도문		다	같이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 싸우다	왕상 20:13-21

■ 들어가는 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엘리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영적 지도자 엘리아를 쫓아낸 후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공격과 위협과 수모를 받게 됩니다. 광야로 쫓겨난 후에도 여호와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으며 평안을 얻었던 엘리아와는 다르게, 아합은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성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은 자 사이의 대조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던 고백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줍니다(시 127:1).

믿음과 순종으로 적을 삼킬지, 불신과 불순종으로 적에게 삼켜질지는 이스라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는 아람군의 대적이 되시지만, 전쟁 후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목적은 아람의 모욕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왔던 지속적인 불신앙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시 46:10).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광중에 드러내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13~15).

아합은 줄곧 하나님을 향해 배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보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았지만 그냥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므로 다른 데서 길을 묻지 않도록 말입니다. 희박한 회개의 가능성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직면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장로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이 벤하닷 앞에서 큰소리를 쳤지만, 결국 희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중에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16~18).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아합 왕의 군대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오에 전쟁을 하기 위해 성문을 나갔는데, 보통 이 시간은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벤하닷과 30명의 왕들은 한 장막에 모여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이렇게 대낮부터 술에 찌들어 있다면 전황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관들이 동원한 청년들(젊은 부하들) 232명은 전쟁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벤하닷은 아합의 군대가 고작해야 어린 청년들 232명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벤하닷은 아합의 군대가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려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적병을 사로잡는 전법은 전술적으로 절대적인 우익을 차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군사 7천 명이 성안에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32명의 젊은 청년들은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싸움에 아합 왕이 먼저 시작하라고 명령 하십니다. 아합 왕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와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적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와와 대치 국면에서 꼭 필요한 전술과 승리의 방법을 들고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전술은 승리로 향해가는 모티브일 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다시없을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19~2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견된 패배를 이유가 있는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패배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당장에 심판하셔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당한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손쉽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칼에 크게 죽었고, 아람의 왕 벤하닷과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객관적인 전략대로 이긴 것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에 능해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도록 더욱 진실하게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적과의 용맹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계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

■ 맺음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유는 자신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불어 닥쳐오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심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평화를 맛보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